



빠른 순발력으로 다양한 요구 완벽 부응 ‘덕원B&C’ ‘개선의 기본정신’과 ‘해서는 안되는 말’

인쇄가 있는 곳에 문화가 있고, 문화가 있는 곳에 인쇄가 있다. 곧 어떤 문화도 인쇄의 힘을 빌리지 않고는 존재할 수 없고, 발전할 수도 없다는 뜻이다. 이에 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원사를 찾아가 인쇄노하우에 대해 들어본다. 이번호의 주인공은 용산구 서계동에 위치한 덕원B&C(Binder & Cover)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1990년 설립된 덕원B&C(대표 최규만)는 자동표지, 금박인쇄, 탁상용 캘린더, 바인더 등을 제작하는 전문업체다. 북바인딩 기계인 독일 콜부스의 DA270 2대, DA36 1대, 후다가미의 면지기계 2대, 도봉정밀의 표지·면지 자동화기계 2대 등을 보유하고 있다.

자체개발한 접착제 인기로 회사 급성장

최규만 대표는 1974년 17살의 나이에 제책사에 입사해 인쇄와 인연을 맺었다. 이후 표지 바인더 업체로 이직하면서 현재까지 30여년을 표지 바인더만 바라보고 살았다. 16년 동안 표지 바인더 업체에서 근무하면서 다양한 작업노하우를 배웠다. 1985년에는 공장장직을 수행하며 이 분야에 더욱 매력을 느끼게 됐다. 표지와 바인더를 예쁘고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보

며 “장인정신을 느꼈다”는 최규만 대표는 1990년 표지 바인더 업계에 입문한지 16년만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6년을 바인더 업체에서 근무한 뒤 회사를 창업하니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의욕이 넘쳤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자체적으로 접착제를 개발해 작업했다. 최규만 대표는 “우리 회사가 설립한 지 2년만에 업계에 알려진 것은 자체 개발한 ‘접착제’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성능이 좋지 않아 종이는 관찮았지만 비닐의 경우 금방 떨어져버리기 일쑤였다. 그래서 15일 동안 꼬박 방산시장에서 판매되는 수십 가지의 접착제를 다양하게 배합해 표지 및 바인더 작업에 최적화된 접착제를 개발했다”고 말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접착제가 인기를 얻으면서 제책업계에는 소문이 퍼졌다. “덕원에 맡기면 불량 없이,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소문 덕분에 덕원B&C는 급성장하게 된다. 또한 서울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소량이지만 처리해야 할 물량이 쌓여갔다. 지금도 그 인연이 이어져 400여곳의 거래처와 거래하고 있다. 최규만 대표는 “우리 회사는 오히려 IMF때 급성장했다. 시내가 가까울 뿐 아니라 다품종 소량작업을 신속히 처리했기 때문이다. 물론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으로 납기를 반드시 지켰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래서 2명으로 시작했던 덕원B&C는 지금은 25명까지 직원이 늘어난 상태다.

표지·바인딩 시장도 어렵긴 마찬가지

표지 및 바인딩 최신 기술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바인더 시장은 기계보다는 아이디어가 큰 차이를 만들기 때문이다. 판지에 종이, 천, 지레자 등을 압혀 가공하는 것은 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물은 크게 달라진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이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수입지와 수입천을 주로 사용해 차별성을 두고 있으며, 최근에는 열로 누르면 색이 변하는 원단을 사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하지만 표지 바인딩 시장 역시 최근에는 오프셋인쇄 시장과 마찬가지로 물량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규만 대표는 “표지 바인더 시장 전망이 그리 좋지는 않다. 지금 많이 위축돼 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항상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0년 국세청장 표창 수상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최규만 대표는 자신의 주변을 돌보는 일과 의무에도 적극적이다. 그 성과중의 하나가 표창장이다. 덕원B&C에 들어서면 3개의 표창장이 걸려있다. 국세청장 표창,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표창, 용산구청장 표창이 그것이다. 국세청장 표창은 지난 2010년 3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사회공헌활동, 고용창출 향상 등을 인정받

아 수상하게 됐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장 표창과 용산구청장 표창은 투철한 사명감과 확고한 직업관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활동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고정관념을 버려야 성장한다

덕원B&C 사무실에 들어가면 벽에 ‘개선의 기본정신’과 ‘해서는 안될 말’라는 경구가 사후론으로 걸려 있다. 덕원B&C가 꾸준히 발전을 거듭해 온 것도 개선의 기본정신과 ‘해서는 안될 말’을 임직원 모두가 가슴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개선의 기본정신으로는 ▲고정관념을 버리자 ▲되는 방법을 생각하자 ▲변명하지 말고, 현상을 부정하자 ▲완벽을 구하지 말고 50점이라도 좋다. 곧 시행하자 ▲잘못된 것은 즉시 고치자 ▲돈이 들지 않는 개선부터 먼저 하자 ▲궁하면 통한다 ▲근본 원인을 추구하자. ‘왜’를 5회 반복하자 ▲한사람의 지식보다 열사람의 지혜를 ▲개선은 무한하다 등으로 정리했다. 최규만 대표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절실히 필요한 내용을 사후론으로 걸어놓았다. 모두 회사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말이지만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관념을 버리자’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은 몸에 밴 습관을 쉽게 고치지 못한다. 개인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회사에 있어서 고정관념은 회사의 발전을 저해하는 제1요소다. 나 역시 고정관념을 버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덕원B&C 연혁

- 1990년 덕원사 설립
- 1992년 제책용 접착제 개발
- 2001년 현 사옥으로 이전. 콜부스 DA36 도입
- 2003년, 2006년 콜부스 DA270 도입
- 2011년 파주 제2공장 설립
- 주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89길 53(서계동)
- 전화 | 02-718-1416 팩스 | 02-704-1419